

“가을만 되면 걷기 무섭다”...은행나무 ‘밑 빠진 독 혈세 붓기’

전남광주 ‘열매 털기’ 소모성 비용 지출
악취·보행 불편 등 민원 매년 되풀이
‘냄새 원인’ 암나무서 수나무로 식재
1주당 수백만원 부담에 교체도 난항
市 “통합 계기 예산 확보 등 힘쓸 것”

매년 가을이면 도심 곳곳에 떨어지는 은행 열매로 악취와 보행 불편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관리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은행나무는 행정통합 이후에도 전남광주특별시의 시목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특유의 악취와 열매로 인한 보행문제 등 주민 불편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매년 9~11월 은행 열매가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진동수확기와 인력 등을 동원해 열매 제거·수거 작업 등에 매년 억단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기준 5개 자치구 총 예산은 ▲동구 1억7천380만원 ▲서구 3억1천260만원 ▲남구 9천760만원 ▲북구 2억3천840만원 ▲광산구 4억6천600만원 등 12억8천840만원으로 편성됐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불로동 거리에서 동구청 관계자들이 진동수확기를 이용한 은행열매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악취의 주 원인인 암나무 수는 자치구별로 ▲동구 약 960주 ▲서구 약 2천200주 ▲남구 약 1천800주 ▲북구 약 3천400주 ▲광산구 약 2천400주 등 약 1만760주로 파악됐다.

사업 내용과 집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암나무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주당 투입 예산은 평균 11만9천740원이 지출됐다. 자치구별로 광산구가 약 19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가

약 5만4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매년 되풀이되는 소모성 혈세 지출을 벗어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그 방안으로 악취 원인인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구는 중앙공원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식재는 수나무로 유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교체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교체된 수

는 2024년 운전로 15그루, 지난해 금부로 18그루에 그쳤다.

북구는 다음 해 시범적으로 버스정류장 주변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 중이다. 동·남·광산구는 아직 교체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자치구 관계자들은 수나무 교체를 일괄 추진

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동수확기는 1주당 3만~5만원, 수거망은 50만~70만원가량이 드는 반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려면 1주당 100만~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 비용만 적용해도 자치구별 전체 교체에는 10억~30억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시 예산이 매년 감소되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동구의 시비는 2024년 1억2천만원가량에서 올해 5천만원대로, 남구 역시 2024년 1억1천만원 수준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삭감됐다. 북·서·광산구 역시 2024년 대비 올해 2천만원~3천만원의 시비가 빠졌다.

결국 시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단기 대응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주민 불편이 반복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미선 북구의원은 최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선관리 구간부터 암나무를 수나무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반복되는 소모성 지출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다음 세대에 부담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광주시 전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며 당장 일괄 교체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행정통합을 계기로 예산 확보와 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까지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서구시설공단 노사 조정 결렬...‘파업 수순’ “재정 고려 없는 보훈병원 부지 제공 반대”

정년 65세·주 5일제 등 이견

대의원대회·총회 거쳐 결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노사가 정년연장과 주 5일제 도입 등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소년노동자들이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7일 서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간 2차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 퇴직 시기 12월 일괄 적용 등을 요구해왔다. 또 지난해 서구가 실시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 청소차량 7대와 인력 2명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정년 연장과 인력·차량 증원 등이 공단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조정 결렬에 따라 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안건을 상정한 뒤 조합원 총회를 거쳐 최종 쟁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파업이 결정될 경우 전면 파업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등 수거 업무를 분야별로 중단하는 부분파업도 검토되고 있다.

조광호 서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집행부 차원에서는 총파업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파업 여부는 이르면 열흘 안팎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파업뿐 아니라 음식물이나 종량제, 재활용품 수거를 하루씩 중단하는 등 여러 방식의 쟁의행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상 기자

공무원노조 남구지부 성명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에 대한 후보지 적절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 보훈부지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공무원노조에서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도서관 분관이 들어서면 지역의 정보·문화 인프라가 확충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남구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구 보훈병원 부지를 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에는 명확히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남구는 캠프와 위탁개발 협약을 통한 청사 이전 당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현재 376억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세수 부족까지 겹치며 올해 추정 당시 13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열악한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병원 부지는 남구가 보유한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며 현재의 재정난을 타개할 유일한 보루”라며 “이 알짜 자산을 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자산 가치를 영구히 상실케 해 재정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 악화는 돌봄·아동·어르신·취약계층 복지예산 등 각종 예산이 축소돼 주민 삶이 심각하게 후퇴될 수 있다”며 “인건비·운영비 압박으로 공무원 정원이 동결·감축되면 업무 과중, 재난·안전 관리, 대민 행정서비스에도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의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특정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일부 주장은 건전한 공론 형성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이 정치적 갈등이나 주민 분열이 아니라 더 나은 남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서형우 기자

나주 60대 부부 살해 용의자 무안서 검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자가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전남광주 무안군 모처에서 살인 용의자 A (52)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5일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주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부부는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손발 등 신체 일부가 결박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모자와 복면을 쓴 채 전기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부부의 집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방범 카메라(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해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후 해당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 1t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이후 나주시 죽산보 인근 수풀에 화물차를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자전거를 꺼내 이동한 후 약 3㎞ 떨어진 도로변에 자전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오지현 기자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폐업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